

	일본 (도쿄)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성용찬 소장
		일시	2024. 11.

CEPA Insight

- 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본에 미칠 영향
- ② 해리스 당선 시의 경우
- ③ 트럼프 당선 시의 경우

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

-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정책은 세계 각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의 정책은 일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주당과 공화당은 통상정책이나 환경정책, 외교 등에 있어서 스탠스가 다름.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현재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임. 공화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는 정책 변화 예상됨.
- 일본의 경제·재정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 과거를 보면 일본의 경제 정책은 미국을 시작으로 해외 경제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 예를 들어, 2000년대는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 개혁노선은 미국의 레이건 정권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정부 노선의 영향을 받음. 현재 기시다 정권이 내걸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민관 일체 투자나 중기적·계획적인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동안에 미국은 바이든 노믹스라고 하는 탈탄소나 인프라 확충 등으로의 재정지출 확대가 진행되고 있었음.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노렸던 작은 정부 형의 정책으로부터 탈탄소, 안전보장, 중요물자의 생산거점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출 확대를 중시하는 큰 정부 형의 시책으로 경제 정책의 조류가 바뀜. 일본도 결국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바꿔온 경위가 있음.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실행하는 정책은 일본도 쉽게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상호 간의 작용이 있었음.
 - 이전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무역 불균등 개정을 요구하면서 일본 기업에게 미국 자국 내에서의 생산확대를 강하게 요구함. 이런 움직임에 일본 기업들이 응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의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투자가 실시됨. 특히 자동차 수출 강국인 일본에게는 미국의 관세나 미국 내에서의 생산요구, 무역협정이나 환경정책의 동향이 중요함. 두 후보의 환경정책은 다르고 트럼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환경정책에 반대함.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의 탈퇴나 연료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어 일본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일본은 EV가 뒤쳐지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기에 선거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음. (출처 : 다이이치라이프그룹, 2024. 7. 9.)

② 해리스 당선 의 경우

- 해리스 부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통상정책은 민주당의 24년 정책강령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해리스 부통령의 통상 관련 정책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TPP(환태평양 파트너십협정)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에 반대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이유는 TPP가 생산과 고용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수입 증가로 인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USMC는 충분한 환경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해리스는 기존 FTA 협상 재개에도 적극적이지 않음. 따라서 미, 일 무역협정의 진전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음.
- 해리스 정권이 탄생하면 앞으로의 무역협정에의 접근 방식이 바뀔 수가 있음.
 - 해리스는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나 그것과 유사한 APEP(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짐. IPEF에 관해서는 관세삭감을 동반하지 않는 새로운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TPP 등의 종래 FTA와 비교했을 때 노동자의 불이익으로의 연결되기 어려운 것도 있음.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권의 IPEF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여짐.
 - IPEF의 무역 기조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르지만, 노동 및 환경문제 적극적 추진, 디지털 경제 추진, 중국 의존으로부터의 탈피 및 핵심 광물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정책 추진 등을 지향할 것으로 보여짐.
- 일본은 공급망 협정이나 친환경 경제협정의 활용이 요구 되어짐. IPEF의 친환경 경제협정, 공정한 경제협정 등 향후 교섭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음.
 - IPEF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폭넓게 부품을 공급, 조달망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제 협력단체임이 틀림없음. 상무성은 2024년 8월 23일 IPEF 공급망 협정을 기본으로 공급망 협정의 위기대응 매커니즘 대상이 되는 중요분야, 부품 리스트를 발표함. 리스트에는 친환경 산업, 반도체, 통신 네트워크 등이 포함됨.
 - 노동조건 개선, 디지털 무역,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추진하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일본 기업은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될 것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발과 직접 투자가 촉진될 것임. 즉 IPEF의 활용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소비세 증세와 같이라며 비판함.
 -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 보편적 기준관세를 발표한 다음 날, 해리스 부통령은 높은 관세 인상이 국민에게 소비세 인상과 같은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반박함. 동시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 가계로부터 연간 최대 3,900달러의 세금을 내게 할 것이라는 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 계산 결과를 보여줌.
 -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양 후보의 관세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출처 :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24. 9. 11.)

③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우

-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은 긴박한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 중국은 군비증강을 서두르고 있고 타이완 유사시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트럼프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에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짐.
 - 트럼프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다면, 일본에게 방위비로 GDP의 2%가 넘는 수준을 요구하거나 재일 미군의 주둔비용의 일본 부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군은 8월 26일 정보수집기가 나가사키현 오키가미 하늘에서 일본의 영공을 침입한 것을 시작으로 8월 31일 측량선 1척이 가고시마현의 일본 영해 내를 침범함.
 - 일본의 방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에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여짐. 트럼프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일괄 10%의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를 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걸고 있음.
 - 트럼프 전 정권에서는 추가 관세를 도입하고,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명확하게 악화 되지 않고 현저한 달러 약세가 일어나지 않았음. 그래서 트럼프는 경제 정책에 그렇게 큰 경계를 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이번의 추가 관세는 전번과 규모가 다름. 트럼프가 도입했던 추가 관세를 현 바이든 정권도 대부분 계승했지만,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평균 관세가 11%, 그 외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평균 관세는 약 1%에 불과했음.
- 중국 규제 정책은 반도체 수출 규제가 중요함. 일본 반도체 제품 중국 수출 비율은 2024년 전반기 50% 정도 급증함. 이는 미국에 의한 수출 규제를 의식했음을 의미.
 - 미국에 의한 대중 관세, 수출 규제의 강화 등으로 세계 무역이 위축될 가능성.
 - 그럼 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 기업에게는 찬스가 될 수도 있음. 예를들면 반도체 메모리나 논리 IC를 조립한 칩렛이라 불리는 신기술은 단일 개체로 미세화되기 보다 복수가 조립되어 하나의 칩 같이 기능하게 함. 이러한 제조 장비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임. 기술 안보 측면에서 동맹국들로 이루어진 공급망이 안정화 된다면 기술, 경제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함.
- 트럼프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연비규제의 완화를 내걸고 있음.
 - 일본은 EV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트럼프의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은 일본 자동차산업에 좋은 영향이라고 보여짐. 하지만 트럼프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
 - 트럼프는 환경규제의 완화는 러스트 벨트 노동자를 위한 것임. 트럼프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미국 석유, 천연가스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주장. 트럼프가 승리하면 미국의 에너지산업이 부활 가능성 있음. 이 과정에서 석유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 있음. (출처 : 모넥스증권 분석 리포트 2024. 9. 6)